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설치로 평화 추구해야...



◀ 이번 학술회의에서 현재 세계적인 힘, 특히 경제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동북아의 군비증강에서 기인하는 불안정과 안보 부재가 심각하게 우려되어 다자간 안보 협력기구의 설치가 강력히 주장되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 박재화)과, 한미안보연구회(공동의장 : 류병현)의 공동 주관으로 「94 국제국방학술회의」가 열렸다.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韓·美 양국 국방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동북아시아 안보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미국이 지난 수년간 10% 이상의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러시아도 1992년 이래 20%이상 삭감한 반면 중국이 경제적 거인국으로 성장하면서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11%에서 12%로 국방예산을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무려 22.4% 증가시키는 등 군사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10년 이내에 아시아 패권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경제적 대국으로 성장해 국민총생산의 1%이하로 국방예산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규모는 세계 2위를 차지하

고 있어 잠재적 군사강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도 국방비 지출을 연 8~15%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증액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군비 경쟁을 유발시키는 요소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게다가 무엇보다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내 유일한 핵 보유국인 중국이 핵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이 비핵3원칙을 주장하지만 주변국가에 핵개발 의혹을 사는 등 동북아 지역은 현재 안보의 공백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실제적 접근을 통해 대화를 촉진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신뢰구축 조치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